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잦아짐에 따라 기상예보에서는 ‘올겨울 최고의 ~’,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한다.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에서는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전 직원 비상체계 구축, 제설 장비에 대한 사전정비 및 배치 등 폭설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영상 다시 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이달의 브리핑'

중랑구, 겨울철 폭설대비 ‘이상無’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구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구청과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은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구는 다목적 제설차량 등을 사전정비·배치하였고 각동에 소형 염화칼슘살포기를 1대씩 배치하여 주요도로뿐 아니라 주택가 뒷길 제설작업에도 적극 대처토록 하였다. 특히 폭설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제설장비와 인근 군부대 인력을 즉시 동원 가능하도록 민간 장비업체 및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고갯길, 보도육교 등 취약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주택가 뒷길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배치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에 제설용 소금을 지원하는 등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1.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 건물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2.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일 10cm이상은 24시간 이내)

3.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전체)
- 이면도로
- 주거용 건물 :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물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도로과 ☎ 2094-2682

보도의 눈을 치우는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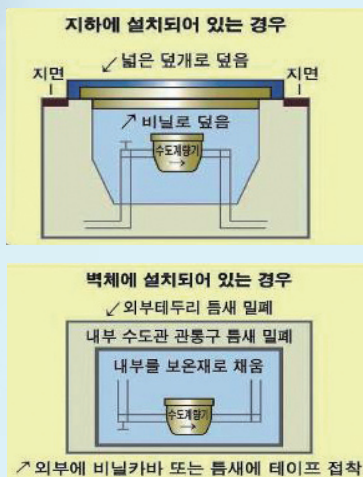
이면도로의 눈을 치우는 범위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요령



계량기 보호통(함) 보온 방법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함(통) 내부를 한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덮개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으로 교체하게 된다.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계량기 동파 신고 국번없이 ☎ 120, 동부수도사업소(주·야간) ☎ 3146-2600